



**日, 가공식품 원료 원산지표시 20개 품목 확대  
개별품질표시기준 및 JAS 규격 개정 승인**

지난 달 일본 농수성은 농림물자 규격조사 회의 총회를 열고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 품목의 확대와 축산물의 원산지표시 개정을 결정했다.

가공식품의 원료원산지표시는 제품중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원재료에 대해 원산국의 표시를 의무화돼 있으며, 지금까지는 절임물 등 8 품목이 대상이었으나 야채와 녹차 등 20품목으로 범위를 넓히고 경과조치는 2년간이다.

신선식품의 원산지표시에서는 외국으로부터 살아 있는 채로 수입된 소고기를 일본내에서 도축해 생산할 경우에 일본산 표시를 할 수 있는

특례(3개월 규정)를 폐지하고 상표축산물에 대해 원산지에 속한 도도부현과 상표의 지명이 다른 경우에는 쌍방 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경과조치는 1년으로 했다. 또 식품첨가물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이 개정된 것을 받아들여 관련되는 개별품질표시기준과 JAS 규격 등의 개정도 승인했다.

**日, PE 포장재 수입 회복세  
지난 해 14% 증가**

일본의 PE 포장재 수입이 최근의 경기 회복세를 반영해 지난해, 전년대비 14% 증가한 1백 71억 8천 5백만 엔을 기록, 2002년도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였다.



특히 중국을 비롯한 대만, 말레이시아산 PE 포장재의 수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 제품의 특성상 품질 등의 면에서 차별화가 이뤄지기 어렵고 주로 가격조건에 의해 수입선이 결정되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일본내 관련수입상들에 의하면, 최근 PE 포장재의 평균 단가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 결과 가격경쟁력이 뛰어난 중국산 수입이 전년 동기대비 26.9% 증가한 63억3천6백만엔의 실적으로 전체 수입시장의 36.9%를 차지했다.

이와 같은 중국산의 대일수출 호조 배경에는 일본의 PE 포장재 업체들이 중국으로 이전한 현지 공장의 생산제품이 일본으로 역수입되는 물량도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산은 지난 3년간 약 12억엔 수준에서 안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일본 세관 통계를 기준으로 2003년도의 수입단가를 비교해 보면, 한국산의 단가는 4백80엔/kg으로 중국 및 대만산 3백10엔/kg에 비해 54.8%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일본 폴리올레핀필름 공업조합의 자료에 의하면, 2003년도 농업용 LDPE 필름의 출하량은 전년대비 3% 소폭 증가한 4만9천7백15톤으로 전체 LDPE 필름 출하량의 8.5%를 차지했다.

한국산 LDPE 합성수지는 기술적인 부가가치적인 요소보다는 주로 가격 조건 등에 의해 좌우되는 일본의 수입시장에서 중국 및 대만산의 가격경쟁력에 밀려 갈수록 열세를 면치 못할 전망이다.

최근 일본내에서 비료 낱알을 합성수지 피막

으로 포장해 시비하는 기술이 일정기간이 경과한 후 합성수지 피막이 주변의 미생물, 햇빛, 공기 및 열 등의 작용으로 자연적으로 분해돼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남기지 않고 비료의 시비도 다양한 기간에 걸쳐 친환경적으로 서서히 조절할 수 있어 인기를 얻고 있다.

JA 전농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내 피복 비료의 공급량이 2002년도에 4년 전에 비해 35% 증가한 11만1천톤을 기록해 일본 내 전체 비료 수요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두드러진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최근에는 제품의 종류가 증가해 폭넓은 작물, 작목 등에 적용할 수 있게 됐으며 동부문의 최대 업체인 질소아사히비료(주)의 기술개발 노력 등에 힘입어 최근에는 피막 포장물이 거의 1백% 자연적으로 분해될 수 있는 친환경적인 합성수지 피막이 주로 이용되고 있다.

### 독, 접착제 산업 활황 올 매출 2.5% 증가 전망

독일 접착제산업협회(Industrieverband Klebstoffe)에 따르면 독일의 전반적인 내수부진에도 불구하고 접착제 산업의 올해 매출은 전년대비 2.5% 증가한 26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포장산업 및 자동차, 항공, 철도 차량 등 운송설비 분야의 접착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중전 용접으로 접합되던 방식이 이젠 접착제를 이용하는 기술로 대체되고 있기 때문에



운송설비 분야에서의 수요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독일 자동차생산업체인 BMW는 예전에 BMW 7시리즈 차체 생산에 10m 길이만큼 접착제를 사용했지만 신 모델생산에는 1백50m 길이에 달하는 접착제가 사용돼 자동차 생산공정에도 접착제 사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철도차량 생산에서도 무게를 줄이기 위해 접착제 사용 빈도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항공기 생산(Super-Airbus A380)에 사용되는 특수 접착제도 현재 개발 중에 있는 등 접착제가 용접기술을 대신하는 추세와 함께 운송설비 분야의 접착제 수요는 향후 두자리 숫자의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협회는 전망하고 있다.

### 불가리아, 포장식품 시장 축소 품목별 성장률 높아

지난 해 불가리아 포장식품 시장규모는 30억 레바(약 16억유로)로 추정됐다.

이와 같은 시장규모는 2002년도에 비해서는 약 1.6%가 감소한 것으로 포장식품 시장에서의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음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 해 포장식품 시장규모가 다소 감소된 것은 크게 두가지 원인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첫째는 공급업체간의 경쟁이 격화된 데 기인한다.

공급업체들이 시장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 가격한 경쟁을 전개함으로써 전체적인 금액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다른 하나는 비포장식품분야와의 경쟁으로 비포장식품의 경우 브랜드는 없으나 가격이 낮기 때문에 포장식품시장을 잠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비포장식품 생산업자에 대한 보조금이 철폐되고, 수출시장이 붕괴된데다가 설비가 낙후돼 생존전략을 내수시장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어서 포장식품시장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전반적인 포장식품 시장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품목별로는 상당히 성장율이 높은 상황이다. 특히 냉동피자의 경우 급속히 성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포장식품 생산업체들은 품목별로 시장을 세분화해 소위 가정에서 자체적으로 제조하는 식품분야 공략을 추진하고 있다.

불가리아 통계청의 조사에 의하면 전체 가정의 3분의 2가 가을에는 저장용 음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전체의 3분의 1은 요구르트, 밀크 등의 제품을 만들고 4분의 1의 가정에서 치즈를 자체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불가리아에 진출한 포장식품 공급 다국적기업으로는 Kraft Foods, Nestle Sofia, Danone Serdika, Delta Bulgaria, Chipitta Bulgaria 등이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불가리아내에서 생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불가리아에서 생산하는 경우 소득수준이 비교적 낮은 불가리아 소비자들의 가격 중심적인 구매형태를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포장식품은 라면 등 극히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수입되고 있으며 점차 품목이 확대되



는 추세에 있다. 식품의 경우 현지 소비자들의 맛에 대한 기호, 향 등의 문제가 있어 상당한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단 브랜드 인지도가 생기면 여러가지 품목으로 확대하기가 용이하다는 장점도 있다.

**베트남, 제지업체들 연쇄 도산 우려  
신기술 도입 도외시, 비효율적 경영 원인**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4개의 정부소유 제지업체들이 3백만\$의 손실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Van Dien, Viet Tri, Hoang Van Thu, Bai Bang 등의 업체들은 상황이 빨리 호전되지 않는 한 부도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당국 관계자는 밝히고 있으며 이렇게 업계의 상황이 악화되는 이유를 업체들이 신기술도입을 도외시하고 비효율적인 경영방침을 유지해 경쟁력이 추락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이와 같이 재정적인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체들의 매각 및 통합은 불가피할 것으로 언급했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3백27개 기업중 19개 정도의 업체의 상반기 손실액은 3백70만\$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개의 제지업체들은 Vietnam Paper Corporation의 자회사들로서 Bai Bang은 연간 10만톤의 활엽수 펄프와 인쇄용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Tri는 3만5천톤의 티슈 및 인쇄용지와 1만톤의 펄프 생산능

력을 Van Dien은 8천6백톤의 테스트라이너를 Hoang Van Thu는 2만톤의 크라프트지와 테스트라이너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이다.

**중국, BOPP 생산능력 확대  
OPP, 2006년부터 중국수출 불가**

세계 BOPP(Bi-axially Oriented Polypropylene) 수요가 2007년 4백60만톤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중국의 BOPP 생산능력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2002년에 이미 아시아 시장에서 가장 큰 BOPP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어 전체의 53%에 이르고 있으며 일본이 13%, 한국이 7%로 뒤를 잇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2003년 BOPP 생산능력이 2001년에 비해 60% 증가한 1백60만톤에 달했으나 전력난과 원료가격 상승 등 생산환경 악화로 실 가동률은 6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가동률 저조로 BOPP를 2006년까지 일부 수입하지만 2007년부터는 BOPP 거대 수출국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중국의 생산능력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베트남, 인디아, 필리핀의 생산능력도 크게 확대되고 베트남은 2006년 17만톤으로 한국을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인디아도 2001년 아시아 전체 생산능력의 3%를 차지했지만 2007년에는 9만톤으로 확대돼 6%의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日, 흙에서 자연분해 플라스틱 개발**  
2006년 생산 계획 밝혀

일본의 최대 합성섬유업체인 데이진(帝人)이 흙에 묻거나 햇빛을 쬐면 자연분해되는 플라스틱을 개발했다고 니혼게이지아이신문이 보도했다.

옥수수에서 추출한 생분해성 물질을 섞어 만든 이 플라스틱은 땅에 묻으면 미생물, 효소 등의 작용으로 자연 분해되며 농작물의 덮개로 사용한 뒤 그대로 방치해도 햇빛에 자연분해된다.

내열성도 뛰어나 전자레인지용 식품의 포장재로 이용될 수 있다. 이 회사는 2006년부터 이 플라스틱을 이용한 제품을 본격 생산할 계획이다.

**중국, 내년 PP 수요 8백35만톤**  
자급률 60% 불과 수입 급증

중국의 2005년 PP 소비량이 8백35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2002년 중국 PP(Polypropylene) 생산능력은 3백88만8천5백만톤, 플랜트 가동률은 96.2%에 달했으며 생산량 급증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은 여전히 수급이 타이트했다.

중국의 PP 생산량은 2001년 약 3백34만톤으로 수입량이 2백8만7천톤에 달해 자급률 61.6%를 기록했으며 수출량은 9천톤에 불과했다.

2002년에는 생산량이 3백68만톤으로 증가했으나 수입 또한 2백44만톤에 달했으며 수출량 1만2천5백톤, 소비량 6백17만2천톤으로 자급률

60.6%를 기록했다.

2002년 PP 소비량은 14% 증가했으나 2003년 상반기에는 사스(Severe Acute Respiratory Syndrome)의 영향으로 소비가 8.8% 감소했다. 그러나 2005년에는 PP 소비량이 8백35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중국은 PP 제조용 프로필렌(Propylene) 수요가 급증해 에틸렌 크래커 증설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확대될 전망이다.

**美, 접착제 상위 8사 점유율 50% 미만**  
경기회복 타고 M&A 활발

경기회복 및 시장성장에 힘입어 접착제 분야의 M&A 활동, 특히 금융기업들의 M&A가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Bostik Findley와 같은 메이저 공급기업 및 포물레이터들은 생산라인 또는 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볼트온(Bolt-On)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틈새 시장을 겨냥한 소규모의 접착제 및 실란트 포물레이터가 붐몰을 이루고 있어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더욱 힘들어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Bostik Findley는 적극적으로 인수에 나서고 있어 2004년에는 북미지역에서 2건의 인수를 계획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다.

접착제 및 실란트 시장에서는 이미 M&A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Henkel은 2003년 10월 약 7천만달러에 멕시코 접착제 생산기업인 Desc를 인수함으로써 멕시코 접착제 사업



을 건축 분야까지 확대했다. 또한 핀란드 YTT Construction의 Makroflexf 인수해 동부 및 북부 그리고 중앙 유럽의 접착제 사업을 확장했다.

Fuller는 Probos의 접착제 및 합성수지 사업을 약 2천만~2천5백만달러에 인수함으로써 동유럽 및 중동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Probos는 핫멜트를 비롯해 수용성 및 솔벤트계 접착제를 생산하고 있다.

또 RPM는 2004년 3월 Heidelberger Bauchemie의 특수 실리콘계 접착제, Joint Filler 및 Sealer 메이커 Compakta/Pactan을 인수했다. Akzo Nobel은 2004년 3월 공업용 PU 접착제 사업을 Sika Croup에 매각했으며, Avery Dennisin은 2003년 8월 6천만달러에 유럽 포장라벨 컨버팅(Converting) 사업부를 CCL Industries에 매각했다.

Georgia-Pacific은 Atofina Chemical의 브라질 Jundiai 및 Belem 소재 열경화성수지 플랜트를 인수했으며, Borden Chemical은 2004년 초 민간기업인 Southeastern Adhesives를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 PET 수요 증가 PET, 코스트 상승으로 채산성 악화

PET(Polyester Terephthalate) 시장이 수요 강세에도 불구하고 최근 에너지 및 원료코스트 압박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Eastman Chemical에 따르면, PET 시장은 여름시즌 수요강세에 힘입어 수급밸런스를 유지

해 왔으며 2004년 북미 PET 시장은 약 8~9%, 세계시장은 약 10%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반경제 성장으로 북미 시장은 성장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시장규모는 여전히 강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3년 중반 가동된 신규 생산능력이 2004년 말 경 시장에 완벽히 흡수됨으로써 북미 생산능력 이용률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원유 및 천연가스 코스트강세로 인해 PET 생산기업들의 마진이 악화됐으나 6월 2센트 가격 인상분이 시장에 반영됐으며 7월 2센트 인상분도 곧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료가격 상승 및 저마진이 지속되면서 지난달 1일 3센트 가격인상이 이미 발표된 상태이다. DeWitt에 따르면, 2004년 PET 시장은 수요는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되나 석유, 가솔린, P-X(Para-Xylene) 및 PTA(Purified Terephthalic Acid) 가격상승 등 외부압력으로 타격을 받고 있다.

미국의 2004년 PET 수요는 약 7~8% 증가하고 세계 수요는 약 1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북미 PET 보틀 그레이드 가격은 파운드당 55~59센트를 형성하고 있다. PET 가격은 석유 보다 가솔린 가격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일반적으로 7~9월 PET 수요는 약세로 전환하지만 최근 코스트 구조 및 수요를 감안 했을 때 PET 가격은 보합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금리상승으로 유로화 대비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 미국 PET 수출은 약세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